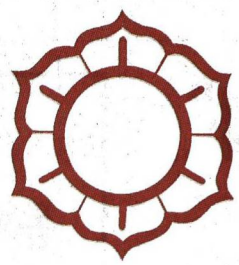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흙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5년
5월 2일
월요일
제67호

이 달의 종조법설
인간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현
명한 사람은 그만큼 그의 생애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도 종
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고해진다. 허다한 난관
과 시련을 거처서 진리를 체득한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모든 인
류의 마음속에 지혜
와 자비의 광명이 충
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
신 뜻은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



효강 종령

이, 힘이 있는 이와
힘이 없는 이의 구별
은 세속의 법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
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
님의 불이법문을 되
새겨 우리 모두가 마
음속의 차별을 걷어
내고, 함께 하는 세상

차별 없는 평등한 부처님 세상

이 평등하고, 과보가 평등하고, 지
혜가 평등함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은 무차별
평등의 부처님 법이 세속의 불평등
차별법에 가린 탓입니다. 잘난 이
와 못난이, 재산이 많은 이와 적은
이, 많이 배운 이와 그렇지 못한

을 만들어 갑시다. 무연대자, 동체
대비의 불이정신으로 서로 차별하
는 행동을 하지 말고, 차별하는 말
도 하지 말고, 차별하는 마음마저
없애어 이 땅에 진정한 평등이 이
루어져 극락정토가 하루 빨리 건설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사



우승 통리원장

오늘은,
인류의 영
원한 스승
이요, 진리
의 등불이
신 석가모
니 부처님
께서 이
땅, 사바세
계에 나투신 참모도 뜻 깊은 날입
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정적이고 제약적이며 고난
과 부자유스런 개인적, 사회적, 자
연적인 환경속에서 즐거움을 누리

너는 잘나고 못난 것이 없는 서로
위없는 평등한 존재이기에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며 주위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동체대비의 자
비정신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투
신 것도 일체중생을 고해로부터 해
탈시키고자 함이요, 중생들에게 잘
게 드리워진 무명(無明)의 그늘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 위함이며, 미
혹과 고난, 다름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여 모
두가 함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법신부처님의 가
르침에 귀명하여 참 '나'를 찾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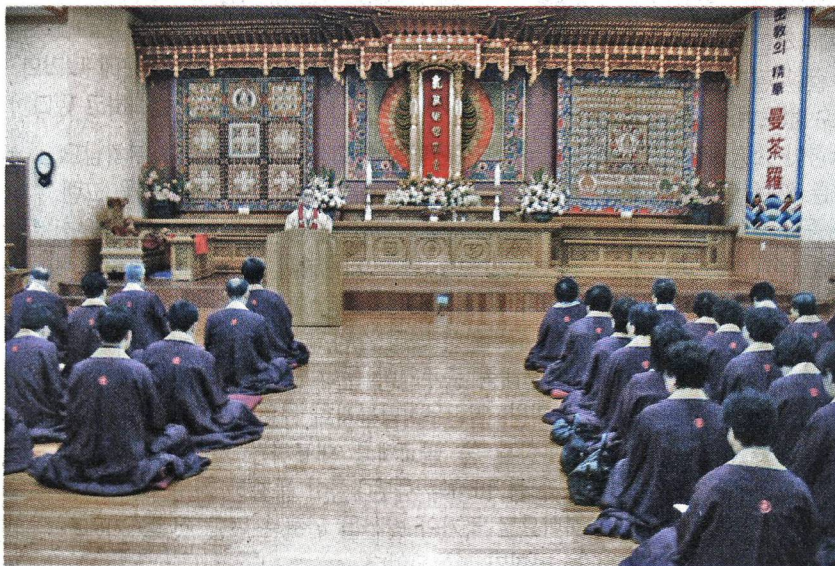
동체대비 자비정신으로 생활

지 못하고 참된 뜻을 펴지 못한 채
불행과 불안속에 떨고 있는 중생들
에게 한량없는 복덕과 무한의 희망
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와 생명의 실상을
바로 깨달으시고 인간의 본성이야
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성품과 동일한 것임을 선
언하시며 우리들 개개인은 불성(佛
性)을 지닌 우주의 주재자요, 주인
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불성과 대자대비한 성품
을 지닌 우리 개개인들은 '나와

간을 갖고 '나'와 '너'라는 분별심
과 이기심, 아집과 편견, 시기와 질
투, 원망심과 간담심으로 가득찬 나
를 버리고, 크고 동글며 자비로 가
득찬 마음으로 회전하여 화합과 이
해, 사랑과 보시로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내 허
물을 깊이 참회하는, 참 수행자의
자세로 거듭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온
누리에 건강과 행복, 부처님의 자
비광명이 가득하기를 두손 모아 서
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총지대학 활성화, 승직자 자질향상 제도마련 제9대 중앙중의원 선출, 관성사 불단장엄 시범운영

총지중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통
리원에서 개최된 제65회 춘계 강공회
에서 총지불교대학정상화, 승직자 자질
향상,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관성사 불
단장엄 시범사업시행 등 교육체계정비
와 불단장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교화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강공회에서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 등 연석회의를 열어 지
난년도 통리원과 유지재단 결산심사와
더불어 종단에 건의된 안건을 처리하
고, 종단의 협력을 조명하였다.
특히 전승단이 참석한 승단총회에서
효강 종령께서는 승직자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으로 종단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화합과 단결로 새로
운 도약의 장을 마련하여 각자 용평정
진을 담당하고, 종령령으로 오는 6월 1
일부터 종단의 승직자 자질향상을 위
해 총지불교대학을 정상화하여 60세
미만의 승직자는 불교교리와 밀교, 교
양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4년과 6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행위승급시 기
로스승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
정도, 수행력, 계율, 교육을 바탕으로
고시제를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만
행위승급자격을 수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청정하고 타의 모범적인 승단조
성과 높은 수행력, 계율로 종단의 승중



제65회 춘계강공회에서 효강 종령께서 종단의 승직자교육과 불단장엄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을 진작시키며 불단의 일대 개혁적인
변화로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행
이나 의례면에서 보다 발전된 종단으
로 교도들에게 신심을 진작시키고 애
중심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강공회는 제8대 종의원의
임기가 6월 만료되어 새로운 9대 중앙
중의원 17인을 선출하고, 신년하례법회
때 제시된 불단장엄의 1개사원 시범운
영 재확인, 교도들을 위한 실비요양원
건립, 광주 법황사 전주 흥국사 5월중

현공불사, 종단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요가교실 운영, 찬불가 녹음CD배포 등
을 처리하였다.
총지중은 이번 강공회에서 새로 선
출된 제9대 중앙중의원들 중 젊은 세대
가 대거 등용된 사실은 종단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도제양성과
승직자 자질향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교화활성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법황사, 흥국사 현공불사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중심지로"



장엄한 지터로 호남지역 밀법을 흥포하고 있는 광주 법황사 전경.

총지중(통리원장 우승)은 광주 법황
사, 전주 흥국사 현공불사를 오는 5월
26일 오전에는 법황사, 오후에는 흥국
사에서 봉행하여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법황사(주교 법수원)는 광주지

역 건설업체인 국토건설(대표이사 박종
학)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368평 대지
에 지하층과 지상1층에는 상가와 사
택, 지상2층에는 서원당을 배치하여 웅
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총기30년 12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총기32년 1

월 15일 준공하였다.
전주 흥국사(주교 밀공정)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대지 307평을 매입
하고 연면적 149.86평 지상2층의 전통
한옥식으로 총기33년 12월 완공하였
다.
법황사, 흥국사 회장보살은 "초창기
부터 총지중의 교도로 허스름한 집에
서 비가오면 비를 맞아가며 겨울이 되
면 벽사이로 술술 들어오는 찬바람을
두꺼운 이불로 막아가며 음마니반메
흙을 염송하였지만 웅장한 새로운 부처
님의 도량이 완공되어 마음의 안식처
를 찾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언행자로서 염송할 수 있어 감
개가 무량하며 밀법을 포교하는 데 앞
장서겠다"고 말하였다.

죽비소리

우리는 아주 명명한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명이란 눈깜짝할 사이에 생(生)과 사(死)
순간을 함께 하지만 생의 가운데에서는
죽음의 세계를 항상 멀리 생각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시간,
갑자기 자신의 앞에 펼쳐질 죽음의 세계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살아있는 반야경』중에서

총기34년(불기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앞에 나타난 밀교! - 불교총지중!

불교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만다라의 금강법계종 총지도량의 진언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총령 효강
통리원장 우승

사감원장 법성

총무부장 전도원
사회부장 환수원

재무부장 시정
교정부장 지희심

서울경인 교구장 연동원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부산경남 교구장 대원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충지칼럼

종교와 미신



김종인

(현) 충지중보 편집인 연구원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연구로 철학 석사 (1994)
스타니부르크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한국 근대 불교와 현대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인을 든다면 만해 스님과 성철 스님이겠다. 이 두 분은

불교계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 두 분은 단지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명망에 어울리는 삶을 산 스님들이다.

만해와 성철 두 스님은 모두 자신들의 사상과 실천을 통하여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두 분의 사상과 실천의 내용은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한 사람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진보적이며 또 한

사람은 속된 말로 요지부동이다 싶을 정도로 보수적이다. 만해 스님은 불교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승려들도 결혼을 해야 불교가 번창할 것이라고 보았다.

불교는 합리적인 철학의 원리를 강조한 종교
기복적인 미신을 버리고 불교의 근본원리 이해

며, 불교의 진리는 만고에 불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만해 스님은 도심 속의 불교를 이야기 한 반면에 성철 스님은 산중의 선방 불교를 이야기 했다. 만해 스님은 불교와 세속적 진리의 융합을 추구한 반면에 성철 스님은 불변만이 절대 진리임을 선언했다.

성을 말한 반면에 성철 스님은 순수한 선 수행을 고집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은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성철 스님은 혼란한 세상을 외면한 채 산문을 타고 일생을 산 속에서 보냈다.

이 두 스님의 사상은 이처럼 많은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불교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 속에 뒤섞여 있는 각종 미신적 요소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론적으로 보면 불교는 매우 합리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종교이지만 한국의 승려들과 신도들의 현실적인 수행 형태는 결코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중에 있는 사찰은 산신각이나 칠성각을 설치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무의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미신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산신각과 칠성각은 불교가 배타적인 태도로 토착의 민간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흡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 백 년 동안 그 속에 내재된 미신적 요소를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존시켜서 한 국 불교 내에 미신을 뿌리내리게 한 것은 불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불교가 이처럼 미신적 요소를 가지게

된 것은 신도들의 근기가 낮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변명한다. 신도들이 산신각에 절하지 않고, 칠성각에 절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소문난 기도처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존재할 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되물어야 할 것은 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미신에서 벗어나게 깨우쳐 주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이다.

신도들의 미신을 방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사찰 유지의 방편도 될 수 없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한 오늘날 미신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미신을 방조함으로써 인하여 미신을 갖고 있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불교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보다는 미신을 추방함으로써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불교 속에서 보편적인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이달의 설법문안

삼독심을 다스려라

경전에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無始習熟 愛欲瞋癡)"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롯함이 없다(無始)"는 말은 한량없는 시간, 인간이 추축할 수 없는 가장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의 영구 그리니치 천문대의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별은 약 6백억 개가 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개의 별이 사라지고 또 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언가를 익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애욕과 분노하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 곧 삼독심을 익혀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보통 재욕(財欲)·색욕(色欲)·식욕(食欲)·명예욕(名譽欲)·수면욕(睡眠欲)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음식·색·수면에 대한 욕심이 근본이 됩니다.

지 않아도 저절로 행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고, 이성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어하며, 졸리우면 잠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탐욕의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두가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는 등의 '싶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생사윤회의 세계, 곧 상대적인 세계에 살다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도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독소, 곧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심

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흔히 과학에서는 1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1차원의 세계는 일직선상에서 앞으로만 갈 줄 알았지 옆으로는 갈 줄 모르는 선의 세계이고, 2차원은 옆도 볼 줄 아는 평면의 세계

이며, 3차원은 입방형으로 앞과 옆, 아래와 위를 모두 볼 줄 아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떼어 놓고 공간만 바라본 세계인데, 여기에 공간을 합치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일치되는 4차원의 세계, 곧 절대적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를 거슬러 해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계는 상대의 세계, 곧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욕심의 불완전 해소로 인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삼독심으로 말미암아 삼악도라 불리우는 지옥과 아귀와 축생의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능엄경을 보면 ‘이 더운 여름에 얼음지옥(寒氷地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얼음지옥은 중생의 탐욕심으로 인해 생기니라. 탐욕심을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탐욕심으로 한평생 잡아당기면 얼음지옥

부지런히 마음자리를 찾아 해탈의 경지

잡아당기는 마음이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잡아당겨 내가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잡아당겨 내가 하며,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잡아당겨 내가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잡아당겨 나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음지옥이 생겨나는 것이다. 마치 더운 여름철에 입을 오픈 셔츠를 입고 걸어가면 입 끝에 찬 기운이 생겨나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을 탐하여 잡아당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음지옥에 갇히게 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심으로 한평생 잡아당기기만 하고 풀어놓을

줄 모르면 얼음지옥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얼음지옥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그 누가 있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산지옥(刀山地獄)이 있는데, 그 지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모든 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게된다. 바로 성을 내는 순간 칼 끝 같은 성정이 뱀썩 솟아나게 되고, 성내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무수히 많은 칼로 만들어진 도산지옥이 생겨나게 되느니라”

실로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칼 끝 같은 날카로운 것이 튀어나와 남을 찌르고 나 자신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산지옥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죽고 나면 그곳에 떨어져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지다 보면 무명(無明), 곧 어두움이 마음을 덮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저 설산동자(雪山童子)처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음으로

로써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골레를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철저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 삼독심에 자기를 내 팔기고 한가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삼독심으로 가득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가행방편! 가행(加行)은 '가미(加味)한다'는 뜻입니다. 한약을 짓는데도 기본 약재로만 짓는 법이 있고 여러 약재를 더 첨가하여 짓는 가미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물탕(四物湯)하면 당귀, 천궁, 작약, 감초로 만드는 것이지만,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은 이 네 가지에 오미자, 산마, 대추, 생강 등을 더 넣게 됩니다.

이처럼 교묘한 가행방편을 써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능히 막고 스스로 도심(道心)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마음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해탈을 이루어야 합니다.

생사윤회를 벗어나 경성성불(見性成佛)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가롭이 근거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몽땅정진하고, '참 나'를 찾는 수행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수시로 찾아드는 탐진. 치의 삼독심을 없애기 위해 한 순간의 방심함도 없이 깨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마음을 냉철하게 돌아볼 줄 아는 수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려로서의 올바른 태도이고 사찰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편집자 주)

Advertisement for Buddhist services including Jeonju Hongguksa and Gwangju Beomhwasa. Features a large photo of a temple building and contact information.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26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수길상보살(水吉祥菩薩)과 수길상변관음보살(水吉祥變觀音菩薩)

지난 호에서 관음원의 풍재보살(豐財菩薩)과 불공견색관음보살(不空觀觀音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수길상보살(水吉祥菩薩)과 수길상변관음보살(水吉祥變觀音菩薩)에 대해서 살펴 본다.

수길상보살(水吉祥菩薩)

수길상보살(水吉祥菩薩)은 『대일경소(大日經疏)』에 따르면, 「수길상(水吉祥)은 연꽃 가운데 물을 내뿜거나 혹은 손을 늘어 뜨려 물을 내뿜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대일여래(大日如來)의 병수(瓶水)를 중생(衆生)들에게 붓고,



수길상보살

진언은 '옴 아리오 다가시리 사바하'이며, 뜻은 '옴! 신성한 길 상이여! 사바하'이다.

수길상변관음보살(水吉祥變觀音菩薩)

수길상변관음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현(變現)하여 무량(無量)한 중생(衆生)을 구제(救濟)하는 보살이다. 이 때문에 대길상변(大吉祥變)이라고 한다.

대길상변보살(大吉祥變菩薩)은 『불공견색경(不空觀經)』에서 유래(由來)하는 이름으로, 거기에서의 존명(尊名)은 락홀슬미보살이라고 음사(音寫)되고 있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으로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



수길상변관음보살

수길상보살은 국토와 몸에 윤택함 부여
수길상변관음보살은 여러 모습으로 무량한 중생 구제

국토(國土)와 몸에 윤택(潤澤)함을 부여(附與)한다'고 하여 윤생금강(潤生金剛)이라는 밀호(密號)를 붙였다.

수길상보살(水吉祥菩薩)이 유래(由來)하는 『불공견색경(不空觀經)』에서는 왼손에 연화(蓮華)를 들고, 오른손의 손바닥을 들고 반가(半跏)로 앉는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해석(解釋)으로는 수월관음(水月觀音)과 동체(同體)라고 보고 있다. 존형은 황색으로 미부연화(未敷蓮華)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손은 시무의(施無畏)로 하고 붉은 색 연꽃 위에 앉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밀호(密號)는 윤생금강(潤生金剛)이다. 삼매야형은 蓮華연화)이고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왼손은 팔을 세워 주먹을 얹고 개합연화(開合蓮華)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갖춰 엄지를 구부려 왼쪽을 향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얼굴은 약간 왼쪽 위를 향한 모습이다. 밀호는 동용금강(動用金剛)이다.

삼매야형은 개합연화(開合蓮華)이며,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은 '옴 락사비마카 비체이 사바하'이다. 뜻은 '옴! 길 상이여! 위대한 명비(明妃)여! 사바하'이다.

(자료정리 : 트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법경정사 (사무국장 겸 연구원)

연기의 사상

▶불교의 중심교리는 연기의 사상이다. 연기는 일체존재에 법칙성을 밝힌 내용으로 그 근저는 인과율(因果律)이다.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써 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연(因緣)·연기(緣起)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는 것이다.

일체는 인과(因果)로써 존재한다.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도 있게 된다. 원인없는 결과란 없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근본되는 교리이고 사상이다. 그러나 인과는 어디까지나 자연과학적인 법칙에 불과하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자극과 반응이 있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연과 달리 인간의 의지(意志)란 것이 있어 그 결과는 무수한 경우의 수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지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인과(因果)라 하지 않고 '업보(業報)'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적 작용을 '업(業)'이라 하고 이에 대한 대상의 필연적 반응을 '보(報)'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한다.

인간에는 이와같이 정신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인(因)과 연(緣)의 화합(和合)이라고 하며, 줄여서 인연(因緣)이라고 한다.

인과라 하지 않고 왜 인연이라 할까. 그것은 인(因)과 과(果) 사이에 간접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緣)을 붙여서 인연(因緣)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 간접적인 요소가 인간의 경우에는 의지(意志)

가 작용되고, 물질의 경우에는 다른 물질과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들어 콩의 경우에 콩은 인(因)이 되고 여기에 가미되는 불(火)이나 간수 등은 연(緣)이 되어 두부라는 결과가 있게 된다. 반면에 시루에 물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물은 다른 연(緣)이 되고 그 결과는 콩나물이 나오게 된다.

이와같이 하나의 인(因)인 콩이 어떤 요소와 연(緣)을 맺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인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변해지는 결과를 일러 인연(因緣)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연(緣)이다. 좋은 인(因)도 중요하지만 그 연(緣)이 더욱 중요하다. 나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이 '친구'를 인(因)이라 했을때, 좋은 친구가 되고 안되고는 나의 '마음지세'라는 연(緣)에 달려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화합(因緣和合)이라 하며 그 상관관계는 나혼자만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도 함께 작용되는데, 이를 일러 '상의 상관성(相依相關性)'이라 한다.

남을 떠나 나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있으므로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있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일체존재의 법칙인 인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설교하신 뜻은 모든 중생이 더불어 살아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



진언수행의 길

진언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람>자관을 행한다. <람>자관이란 번뇌를 없애고 삼매에 들게 하는 밀교의 관법이다. <람>자는 일체번뇌를 없애는 진언종자인데 이 <람>자를 관하는 것은 바로 일체의 번뇌방상을 태워 없앤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총지종의 소의밀교경 제인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의하면, '이 종자를 머리에 떠올리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의 모든 번뇌방상을 소진시켜 없앤다.'는 생각으로 <람>자를 관하도록 하고 있다. 번뇌방상이 없어질 때 진정한 삼매에 들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바로 삼밀수행의 입삼매(入三昧)는 <람>자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해서 말하면, 타 종단의 법회의식 가운데 설법과 정군에

앞서 행하는 입정과 같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람>자를 관하는 방법은 먼저 나의 정수리 위에 둥근 보름달을 떠올리고 관을 한다. 다음에 그 보름달 위에 <람>자를 살피며 올려놓고 보름달과 <람>자를 함께 관한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고요히 정(定)에 이르면 바로 청정법계의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이른바 자신의 몸 정수리에 한 글자의 법서

<람>자가 있다고 관상을 하라. 이 글자엔 광명이 두루 편재해 있어 마치 밝은 진주처럼 혹은 밝은 만월처럼 비추고 있다."

<람>자를 관할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람>자를 묵송(默誦)한다. 이 <람>자를 관할 때는 삼매야인(三昧耶印)을 결한다.

<람>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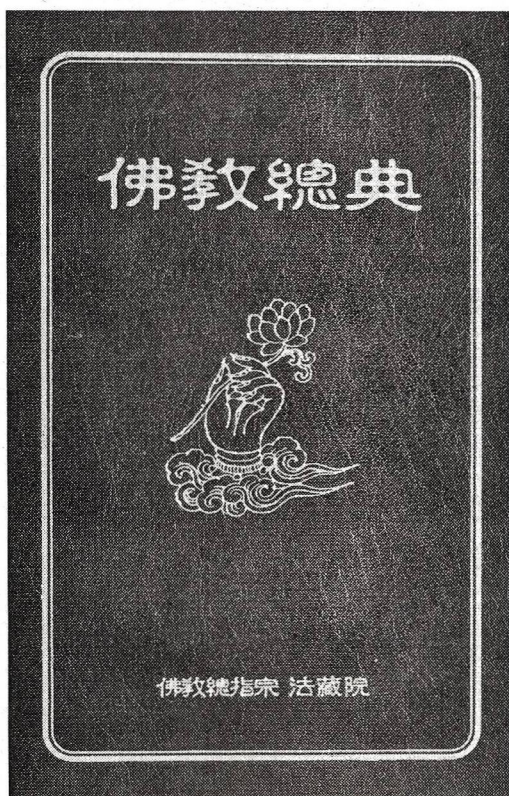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법문

‘중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중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중조님의 승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중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중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심인 불교를 세우는 뜻

불법은 체오 세간법은 그림자라, 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고 체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과 세간법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라서 불법이 발라지고 흥하는 데 국가가 발라지고 흥양하여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지라도 불교가 흥양하던 때는 국가도 장원하게 흥양하였고, 불교가 쇠퇴하던 때는 국가도 곧 쇠퇴하였던 것이다. 불교가 국가의 중심이 되어 있던 신라, 고려의 문화는 백천년 지나온 금일에도 세계가 알게 되고 그 유물은 과학문명이 발달된 금일에서도 숭배하며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교가 이조 오백년 동안 통솔적인 일원주의 유교 정치의 통치하에서 산간 벽지로 유포되고 특히 선조 이후로는 승과도 폐지되고 압박이 우심 하였으며, 교종도 점점 쇠퇴하였으므로 문자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회에서 법을 전할 수 있는 방편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압제 받은 그 당시는 오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제일 중지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세를 허무하게 뜬 구름 같이 보고 내세 극락을 주로 하는 초세적 방편으로 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던 것이다.

만일 그 때 승이가 이 세상을 실감해 보고 처자, 부귀, 영화를 생각하였다면 부처는 부처대로 돌아가고 법은 법대로 돌아가고 승은 승대로 돌아가서 오늘날에 불법승 존재가 어디서 나타났나 숭상하여 왔으랴. 이렇게 하여서 이미 삼천년간 전통을 이어 왔고 또 한정없는 미래에도 변함없이 계승 될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이원주의로 전환한 이십세기 오늘날에 부처님의 진리와 언행

을 바로 가르쳐서 현세를 교화 하려는 새 불교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을 바라보고 이어 왔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가까운 유교의 성쇠를 볼지라도 통솔적인 일원주의를 세우되 왕 할 때는 부문을 논아서 공자를 숭상하는 향교가 있었고, 동시에 공자의 덕업과 언행을 가르쳐서 교민화숙하던 서당이 방방곡곡에 있었던 것이 쇠퇴한 금일에는 숭상하던 향교만 남아 있으니, 불교도 이와 같이 이조 오백년 중 쇠퇴함을 따라 부처의 진리와 언행을 가르쳐서 교화하던 교종은 점점



을 다 알리자면 삼보 불교가 상을 보고 불법승을 숭상하여 정화하는 동시에 심인불교는 상을 떠나서 불의 진리와 언행을 바로 가르쳐서 교화 하는데 이원이 되어서 평등 교화가 되며 또 이와 같이 동양 불교가 바로 서는데 동서 양교가 종교의 이원이 되어서 세계 평화의 기초가 한국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동양 서양의 사상 근기, 의식주 풍속 기타 모든 행사가 상반되는 각 국을 통하여서 한 법문으로는 도저히 화민성숙할 수 없는 것이라, 세계적 대 범위로 교화 하자면 반드시 분교 혹은 이교와 같이 되어야 교화 되어질 것을 이미 불이 분명히 지적하신 바이다.

그러므로 서에는 하나님 교, 동에는 불교 다시 이것이 하나님교에서는 천주교 예수교 불교에서 삼보불교 심인불교 등 종파로 분교가 되는 데 이원의 근원이 바로서고 교리가 각각 분화 발달하여 각자의 종지를 최고로 발휘하는 데 부지불각중 피차 교화가 영향되고 서로 침투하여서 그 나라 세계에는 종합적 불분불의하고 평등한 교화가 양성되어 억만민중이 다 최고로 문화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분류의 말씀과 같이 불교가 있어도 정도를 세우지 못하면 전법도생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와 언행 바로 가르쳐 현세 교화 세계에 평등문화가 이룩될 때 세계 평화

없어지고 부처를 숭상하여 법을 이어가는 사람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무가 줄기 하나만 있을 때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가지가 벌어짐에 따라 뿌리도 굵고 지엽이 무성 하여서 결실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일교내에서 여러 부문을 여는 것은 암흑시대의 통솔적이며 일원주의적이며 봉건적인 소법이며 소발달이요 일교에서 체용과 방편이 달라서 이교 같이 분교되는 것은 문명시대의 자주적이며 이원주의적이며 평등적인 대발달이다. 그러므로 현세를 교화 하려고 새로 나온 심인

불교는 교종과 진언종을 주로 하고 불타의 중생 교화의 본 뜻을 바로 가르쳐서 다신다불을 세우지 않고 안으로 나에게 있는 심인보살과 밖으로 삼계에 찬 하나부처님을 깨쳐서 동서문화가 크게 교류하는 세계적 대 변혁기에 순응하여 지주

가 아닌 의리적 방편, 교민 화속에 아닌 초세적 방편, 평등이 아닌 차별적 방편, 청신이 아닌 미신적 방편, 과학문명인을 제도하기 어려운 우치적 방편, 대중적이 아닌 독선적 방편을 탈각하고 불교의 실천강령인 회사, 계행, 하심, 용맹, 열승, 지혜 등 육바라밀을 실행하여 마음 중생을

제도하는 데 현세에 안락하고 후세에 극락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인진리를 깨쳐서 전수하는 정사는 법사와 달라서 부부생활을 하고 세상에 처하면서 중생으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 있어서 보살계를 가지게 하여 화민성숙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서양 사람이 다 하늘님 말씀을 믿되, 천주교는 천주를 높이고 구약율법을 지켜 가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장로신교는 예수를 믿고 신약복음을 전파하여 가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양 사람도 부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다신시대에 시기, 질투, 당파로써 분열된 삼한삼국이 다 신불교 이었으나 그 중에 신라가 불종을 세워서 통일함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각 교 유, 불, 선, 신, 예수 천주를 다 믿고 있으나 예절과 의식 갖추기를 주로 하여 형식화된 것이 많으니 오직 이제 대한에서 자음이 있는 종교가 곧 흥양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 불교는 중심에 자음이 있으므로 종파가 흥양할수록 발달 되어서 대법위로 진보하는데 집과 나라와 세계에 평등문화가 일어나서 인류가 평화 가운데 살수 있는 것이다. 만일 종교가 자음을 잃고 의식을 주장하고 형식화 되어 유교 신교와 유사하게 되면 시기 질투 당파가 일어나서 지도 없애지고 나라도 없어지며 세계도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므로 민주주의로 남북이 통일되자면 종교의 자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마땅히 자음이 있는 이원종교가 일어날 시대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총학연구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알코올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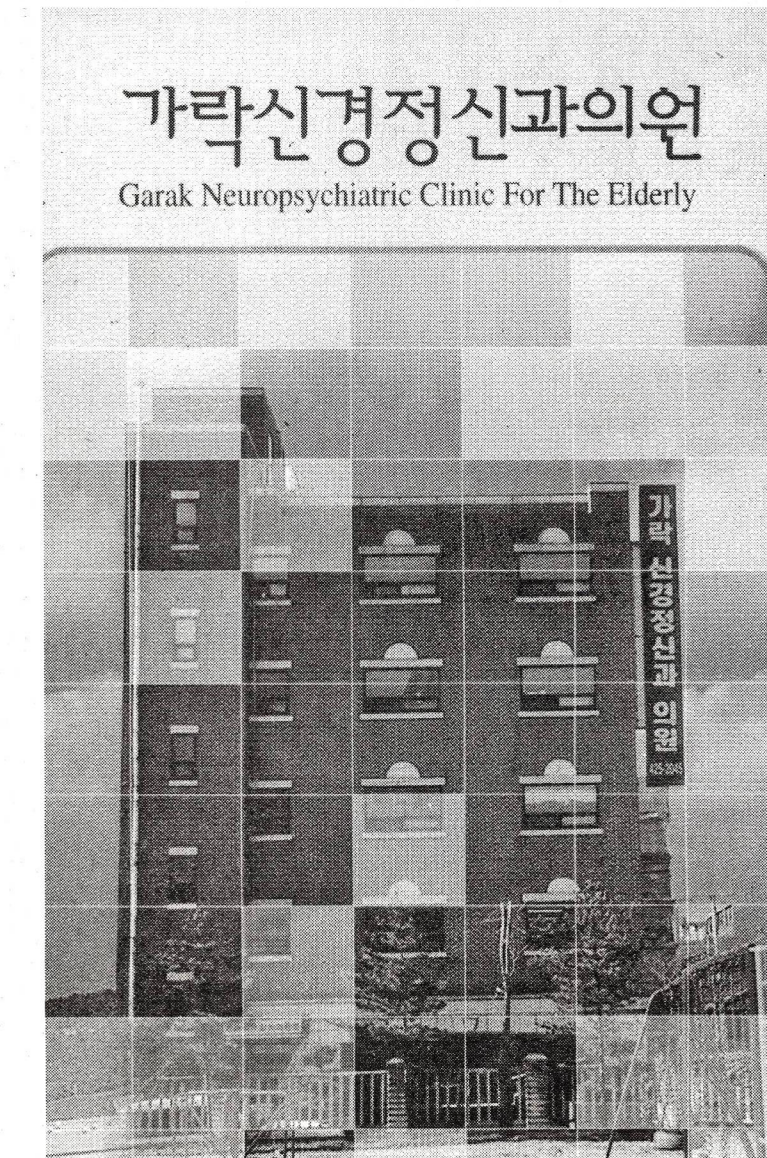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이란 용어가 흔히 사용되지만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알코올 남용은 심한 음주로 인해 사회, 직업적 기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 계속 술을 마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코올 의존이란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로 점차로 내성과 금단증상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내성이란 말 그대로 이전엔만큼 마셔서는 간에 기별이 가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한 병만 마셔도 적당히 취가 오르고 기분이 좋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로는 성에 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 바로 금단증상입니다. 술꾼들도 가끔은 끊겠다는 결심을 한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술로 인해 사회생활도 지장을 받게 되면 술을 멀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결심은 금단증상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절부절못하고 집중도 안되고 잠도 안 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 속에는 온통 술 생각뿐입니다. 이러니 어느새 다시 소주잔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순간 금단증상은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각한 금단증상의 경우 술을 끊고 하루 이틀 지나면 헛것이 보이고 황실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알코올성 섬망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심각한 중독 상태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다. 알코올 중독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에도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독자들의 음주욕구, 갈망을 줄여주는 많은 약물들이 개발되어 효과를 보고 있고 개인 상담과 집단치료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도 단주 친목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환자들의 치유와 재발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를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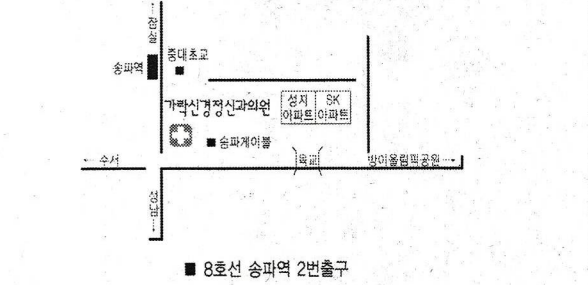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풍경소리

이미 갖추고 있기에

새의 노래 소리는
이미 새의 몸 안에서 노래 불렀고

사과나무는 꽃을 피우기 전에
이미 사과를 품고 있었고

연꽃은 물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연못으로 있었듯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도 이미
자기 안에 갖추어져 있지 않을까요?

- 문운정/수필가

날마다 좋은 날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달 밝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눈 내리니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시절일세

- 무문선사

즐거움을 원한다면

사람이 비록 악을 행했다라도
그것을 자주 되풀이 하지 말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나니

악이 자주 쌓이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람이 만일 복을 짓거든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나니
복이 자주 쌓이는 것은 즐거움이다.

- 『법구경』중에서

자기를 비취보라

부처님이 제자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연못 속을
가리키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이 말라 고기도 없는 연못가에 쓸쓸히
서 있는 저 늙은 왜가리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힘이 없어 날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젊음이 잠깐인 줄 모르고
배우지 않고, 일할 나이인데도 마음에 맞지 않는
다고 일하지 않고 스스로 재물을 모을 기회를 잃
어 버린 채 늙어버린다면 저 늙은 왜가리가 고기
없는 빈 연못을 바라보며 쓸쓸히 서 있는 것과 같
이 되느니라."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든 늙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늙어가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를
비취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 김원각/시인

이달의 명상

참회의 공덕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누우쳐 부처님께 고백하
고 용서를 비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은 대부분
나에 대해 집착함으로써 탐,진,치의 마음과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
의 허물들은 하늘의 구름처럼 마음속을 꽉 채워
서 자신을 어둡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게 하
고, 부처님의 태양광명 같은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회를 통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
여야 잘못된 나에 대한 집착도 없어집니다. 참회는
열심히 불공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합
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앙금처럼 가라앉은 지
나간 일들에 대한 감정, 특히 분노와 원망, 증오
같은 것은 지극한 참회를 해야만 없어진다고 합니
다.

한 예로 경북 대구시에 관철염을 앓고 있는 아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다리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
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참회의 생활'이란 법문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비취 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분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집안의 복잡한 가족 관

계로 마음의 아픔을 어렵게 견뎌 내면서 가족을 미
워하고 원망하여 분노의 감정을 쌓아가고 있었습
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분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었
던 것을 인정하면서 지극한 참회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참회기도의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의 통증
이 조금씩 사라지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
습니다.

대체로 어두운 생각은 어둡고 괴로운 일들로 변
하여 나타나고 마음이 아픈 생활은 육체의 아픔으
로 변하여 나옵니다.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불평불
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대가 나쁘다고 하기
전에 이들을 나쁘다고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 보고 참회해야 합니다.

이렇듯 참회기도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므로
우리가 육체를 깨끗이 하기 위해 자주 목욕을 하듯
이 내 마음의 삼독심을 지우고 고요한 평정을 얻는
참회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나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정리하는 시간
에는 꼭 참회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편집자〉

월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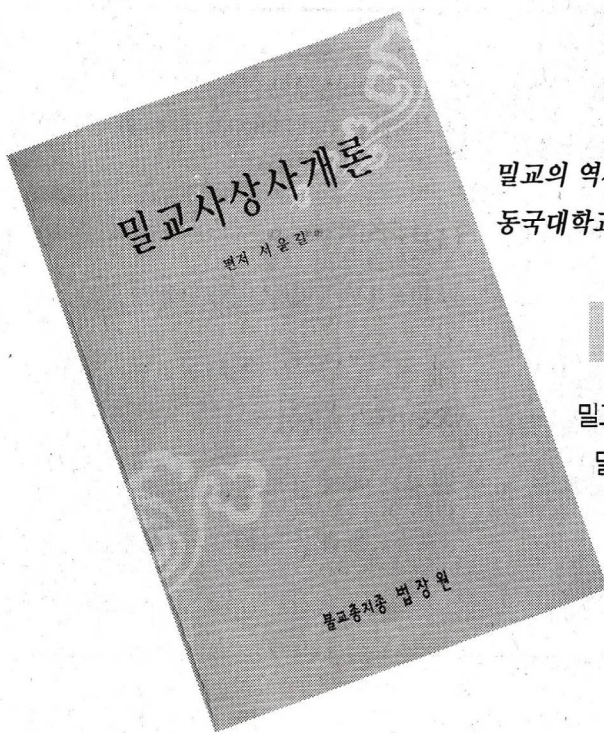
~반야심경편 제 40화~

글:그림/정수일



정수일홈페이지-http://home.paran.com/octagonp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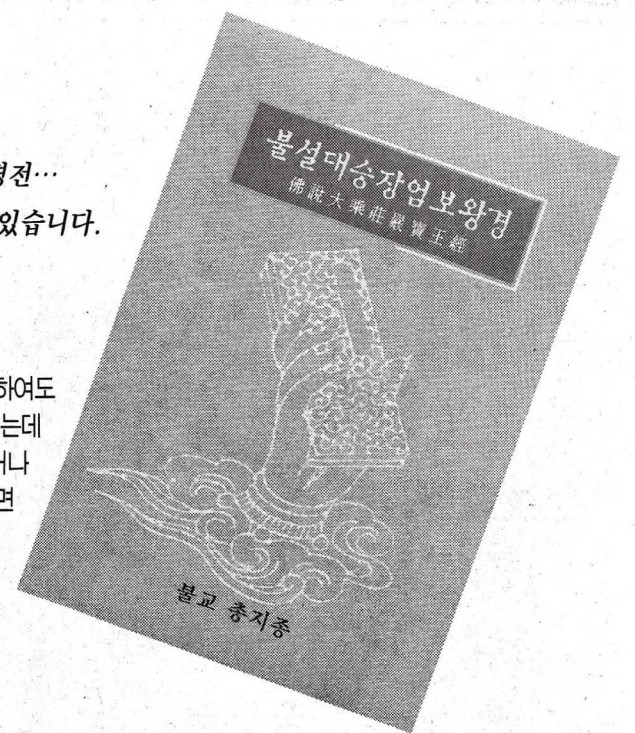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음마니반메홍)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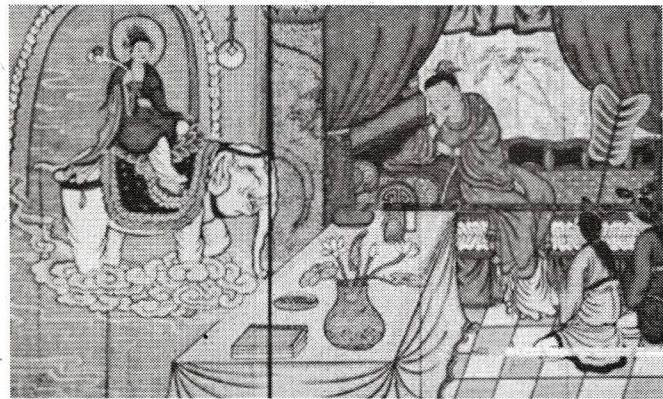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기획특집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팔상도로 본 부처님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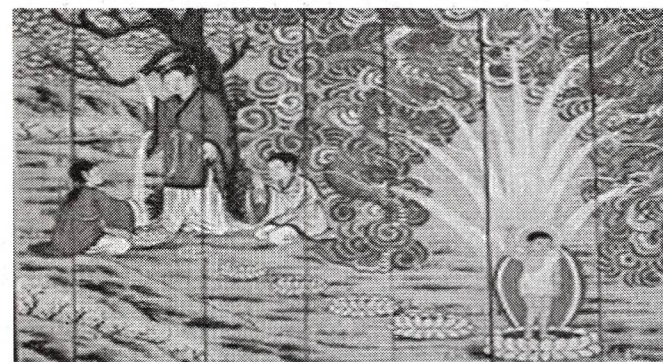
팔상도 1-도솔천에서 내려오심(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모든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이전에 '보살'의 시기를 거치는 법입니다. 보살은 대중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무수한 생을 다양한 모습의 보살로 살아오면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제도하였습니다. 무수한 방편과 윤희력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던 보살은 도솔천(兜率天)이란 하늘 세계에 '호명보살(護明菩薩)'로 태어나 큰 깨달음을 이룰 인연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보살은 인도의 카필라국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날 것을 결정합니다.

정반왕의 왕비인 마야부인은 왕위를 물려줄 태자가 없어 근심하던 어느 날 상아가 6개인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상서로운 태몽을 꾸었습니다. 도솔천은 모든 보살이 마지막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 머무르는 하늘 세계입니다. 지금은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머무르면서 이 사바세계로 내려올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상도 2-물भि니 동산에 탄생(비람강상생:毘藍降生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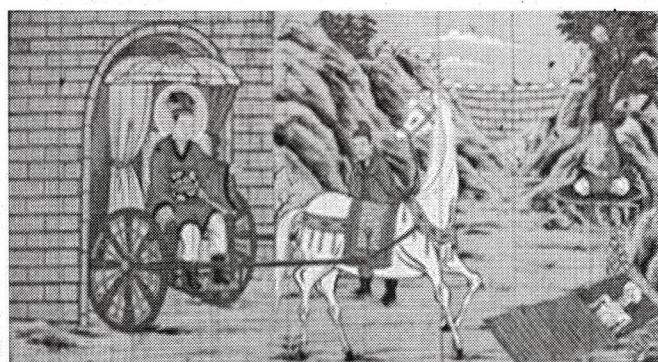


해산을 위해 친정인 폴리성으로 향하던 마야부인은 카필라와 폴리의 경계에 있는 룸비니 동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을 반짝이고 있던 무우수(無憂樹) 나무 한 그루가 부인의 머리 위로 가지 하나를 늘어뜨렸습니다. 마야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지에 달린 잎사귀를 쥐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일곱 발자국을 옮기며 사방과 상하를 둘러보고 난 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 첫 외침이야말로 모든 존재와 생명력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괴로움에 대한 불교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존귀하다는 것은 부처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결코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여 해결하겠다는 서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태

어난 아기 이름은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뜻에서 '신타라'로 정해지고, 석가족 사이에선 '고타마'로 불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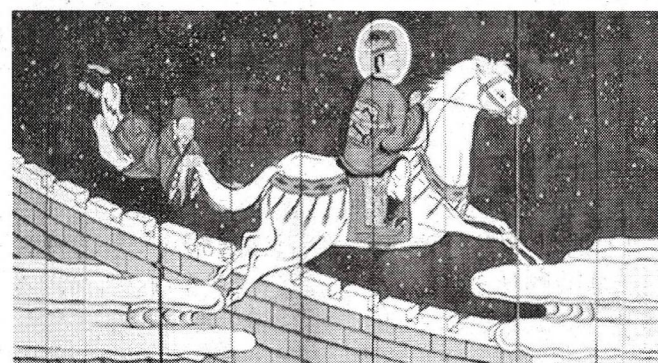
팔상도 3-세상의 고통과 직면(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신타라라는 궁전에서 태자의 신분으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주위는 생명력과 기쁨으로 채워질 뿐, 삶의 고통이나 슬픔은 지리할 수 없었습니다.

신타라라는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태자는 동쪽 성문 밖에서 형용어린 머리카락에 바짝 마른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손발을 떠는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랐습니다. 누구인지를 묻는 태자의 질문에 마부는, "저 사람은 노인인데, 우리도 언젠가 저처럼 늙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쪽 성문을 나서자 이번에는 문둥병에 걸려 물골이 흥충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서쪽 성문 밖에선 관 속에 누워 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성문 밖에서 수도승을 보았습니다. 그 수도승은 생사를 초탈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한계에 괴로워하던 신타라라는 마침내 그 수행자의 얼굴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언젠가는 출가수행자가 되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팔상도 4-성문을 넘어 출가하다(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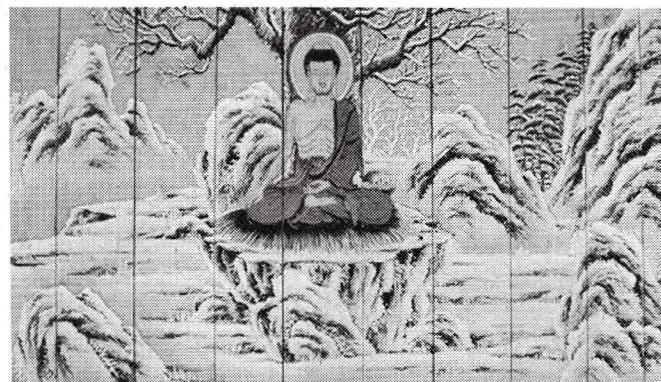
출가를 결심하던 날 신타라타의 부인 야소다라 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육동자의 출산 소식을 듣고 신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라훌라(장예)'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오직 출가를 결심한 자신에게는 장애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쁜 결단을 앞둔 한 인간의 결연한 태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비장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신타라라는 성문을 넘어 출가를 결행합니다. 태자로서의 고귀한 지위도, 가정의 안락과 행복도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생, 노, 병, 사의 의문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신타라라는 성문을 빠져 나와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강을 건넌 뒤, 수행하던 시종에게 옷을 벗어 주며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 머리칼을 잘라 허공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그 언젠가 보았던 북쪽 성문 밖의 수도승처럼 신타라라 자신도 출가

사문이 되어 참된 진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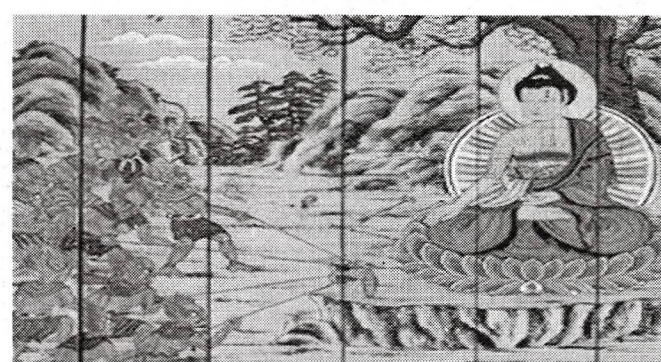
팔상도 5-설산에서 수도하다(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출가한 신타라라는 7일 동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뒤 가르침을 받을 만한 숲 속에 사는 은둔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 혹은 이를 사흘에 한 끼씩 먹으며 물, 불, 태양에 경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타라에게 북쪽에 살고 있는 세 분의 스승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세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마침내 그들의 경지까지 이르렀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지는 신타라타가 찾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궁극의 경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홀로 깊은 설산으로 들어가 6년 동안 고행과 단식에 몰두했습니다. 사나운 비바람과 강렬한 햇살에도 끄떡하지 않았으며, 피부는 모두 말라가고 뼈가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로 고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신타라라는 고행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행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강물에 목욕하고 근처 마을에서 올라온 수자타라는 처녀가 공양한 우유죽을 먹고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리수 아래 자리를 잡고 정각(正覺)을 얻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결심을 한 뒤 고요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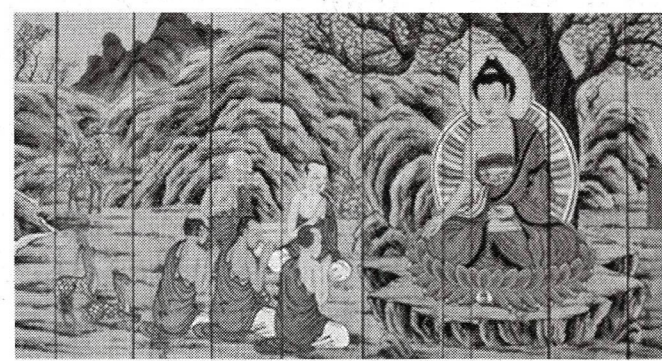
팔상도 6-보리수 아래서 온갖 장애를 극복(수하강마상:樹下降魔相)



애욕과 죽음의 신(神)인 마왕 파순이 신타라타를 공격했습니다. 신타라타가 정각을 성취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마왕 파순이 위력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왕의 공격은 긴 밤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온갖 악마들, 짐승과 괴물들을 총동원하여 화살과 피바람을 날리며 신타라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은 신타라타를 동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패배한 마왕은 이제 자신의 팔들로 하여금 신타라타를 유혹하게 했습니다. 신타라타를 둘러싼 여인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신타라라는 여인들에게 그들의 본질이 허깨비임을 일깨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여인들을 가리키자 추한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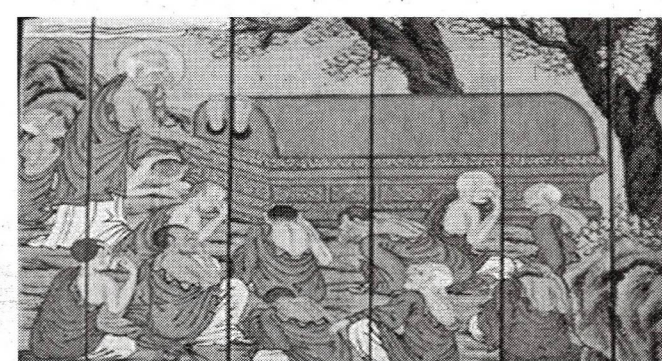
파로 변해 버렸습니다. 혼란에 빠진 마왕의 세력들은 사본오열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보리수 아래 정좌(正坐)한 신타라타는 마침내 번뇌의 불꽃과 생사의 매듭이 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났습니다.

팔상도 7-전법의 길을 나섬(록원전법상:鹿苑轉法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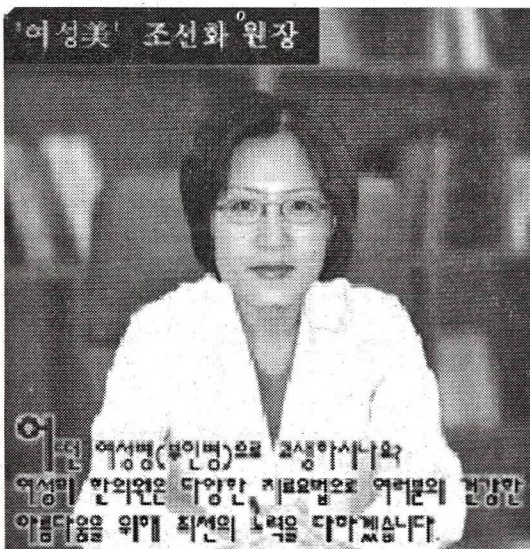
신타라라는 이제 더 이상 신타라타가 아닙니다. 그는 '깨달은 자', 곧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녹야원(鹿野苑)으로 향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날 고행을 포기할 때까지 함께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들과 재회하여 그들을 위해 최초의 설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속적인 쾌락의 삶과 육체를 확대하는 고행의 삶의 양극단을 떠나 올바른 삶의 길을 가야 한다는 '중도(中道)'의 가르침과 중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팔정도(八正道)' 그리고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되는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사성제(四聖제)'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불교는 불(진리를 깨달은 스승)·법(그 가르침)·승(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삼보(三寶)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녹야원에서 첫 설법에서부터 비로소 삼보의 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팔상도 8-사라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시다(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부처님은 45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 하였습니다. 이제 80의 나이는 부처님에게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 했음을 알려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소유하지 않고 맨 손, 맨 발로 전법의 여행을 하였던 부처님은 고향인 카필라로 돌아가던 중 쿠시나기라의 두그루 사라나무 아래서 육신의 옷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길에서 탄생하여, 길을 찾고(求道), 길을 설파하다가, 마침내 길에서 열반 하였습니다. 슬피 우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을 설했습니다. 누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후 2,500년의 장구한 세월을 걸쳐서 동양의 밝은 등불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며, 오늘날에는 물질문명과 이원론의 한계에 부딪친 서구인들에게도 서서히 지혜의 등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성美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 경 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 신 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 후 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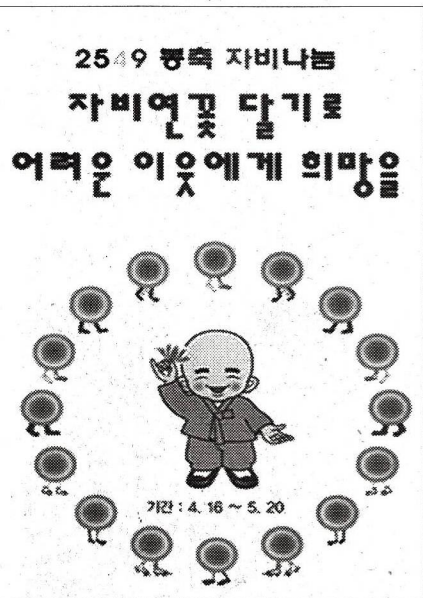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사의 상담”

한남대교, 신사역3번출구, 신사역1번출구, 도산대교, 잠원동, 신한은행빌딩, 30M, 20M, 1분거리, STARBUCKS, 대성미한의원, 강남역

교계소식

‘우리도 부처님같이’

봉축위, 연꽃배지 10만개 배포 ‘나눔축제’로



이날부터 종로와 세종로 등 서울시 전역에 3만여개의 가로 연등을 설치해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과 봉축의 기쁨을 알린다. 전국에서는 지역사민연합회, 대형 사찰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장엄등 또는 대형 연등을 사찰 경내와 시내 거리에 설치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자비와 나눔'이라는 가르침을 흥포한다. 또한 참여한 외국인 수는 대략 1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축의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의 제등행렬 및 불교문화마당은 5월 8일 조계사 앞 길과 동대문운동장에서 종로를 잇는 구간에서 장엄하게 펼쳐진다.

불자들의 가장 큰 명절인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5월 15일)을 앞두고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총무원장 법장 스님)는 서울시청 앞 봉축 장엄등 점등일인 4월 22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전국의 봉축 행사를 통해 '자비와 나눔'을 정착시키고 있다. 봉축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서막을 알리는 '기쁨과 나눔의 등' 점등식을 개최하였고,

독도에 '지킴이등' 밝힌다 등대에 연등 설치, 순직경관 위령제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단 독도에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이 내걸릴 전망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5월2~6일께 독도등대에 '독도 지킴이등'을 내걸고 독도를 지키려다 순직한 수비대·경관 등을 기리는 위령제를 추진하고 있다. 조계사의 위령제 및 독도지킴이등 점등식 계획에 따르면, 5월 1일 조계사 종무

원과 신도로 구성된 실무팀이 독도로 입도해 등대 주변에 직경 90cm 크기의 지킴이등 10여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30여명의 불자들이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독도에 들어가 점등식과 순직경관 위령제를 봉행한다. 5월 18일까지 설치되는 독도지킴이등은 독도는 물론 동해에 부처님의 자비공명을 밝게 비출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방송 개국15주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교포교

라디오 포교 시대의 지평을 연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이 5월 1일 개국 15주년을 맞는다. 불교방송은 1990년 첫 전파를 발사한 이래 현재까지 전파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방송은 그간 많은 청취자 수와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의 개발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냈다. 방송광고공사 청취율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불교방송의 청취자는 2백만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교방송이 15년간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만 해도 약 1500여 편에 다다르며 방송 시간은 중일방송에 가까운 하루 22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미디어 법회, 포교, 웰빙, 교양, 시사 등의 전방위적 포교 콘텐츠도 불교방송의 질적 향상을 돕는데 큰 몫을 했다. 이중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방송하는 '거룩한 만남(1990~현재)'은 불교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진각종 새 통리원장에 회장 정사

4월 20일 342회 정기총의회서



통리원장 회장정사, 교육원장 경정정사, 사무원장 해명정사

진각종 제27대 통리원장에 회장 정사(신출됐다). 진각종 총의회는 4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제 342회 정기총의회를 개최, 밀각심인당 주교 회장 정사(전 총무부장)를 향후 4년간 종단을 이끌고 갈 통리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정사는 이날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37표중 23표를 획득, 14표를 획득한 효안 정사를 제치고 통리원장에 당선됐다. 회장 정사는 "종단 발전과 밀교중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종단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 전 종도의 화합을 바탕으로 발전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회장 정사는 지난 25대 통리원 집행부에서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진각종의 대북 불교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복지종단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등 개혁적 성향을 보여왔다. 회장 정사는 총무부장을 역임한 이후 회당학원 이사로 활동하며 위덕대학교를 비롯한 종합학교의 운영 변화를 요구하는 등 변화와 개혁을 통해 종단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편 진각종은 교육원장에 경정정사, 사무원장에 해명정사를 선임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함경 이야기

부처님의 성도(2)



화령 정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난 진리를 음미하면서 그렇게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논리화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경전에서는 그 때에 깨달으신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던 중 7일이 지난 후 밤이 시작될 무렵에 연기를 순서대로 사유하였다. 이것이 있으면 저 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 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으며,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으며,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있으며, 육체로 말미암아 축이 있으며, 축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으며,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으며,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으며,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으며,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으며, 생으로 말미암아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가 있다. 모든 괴로움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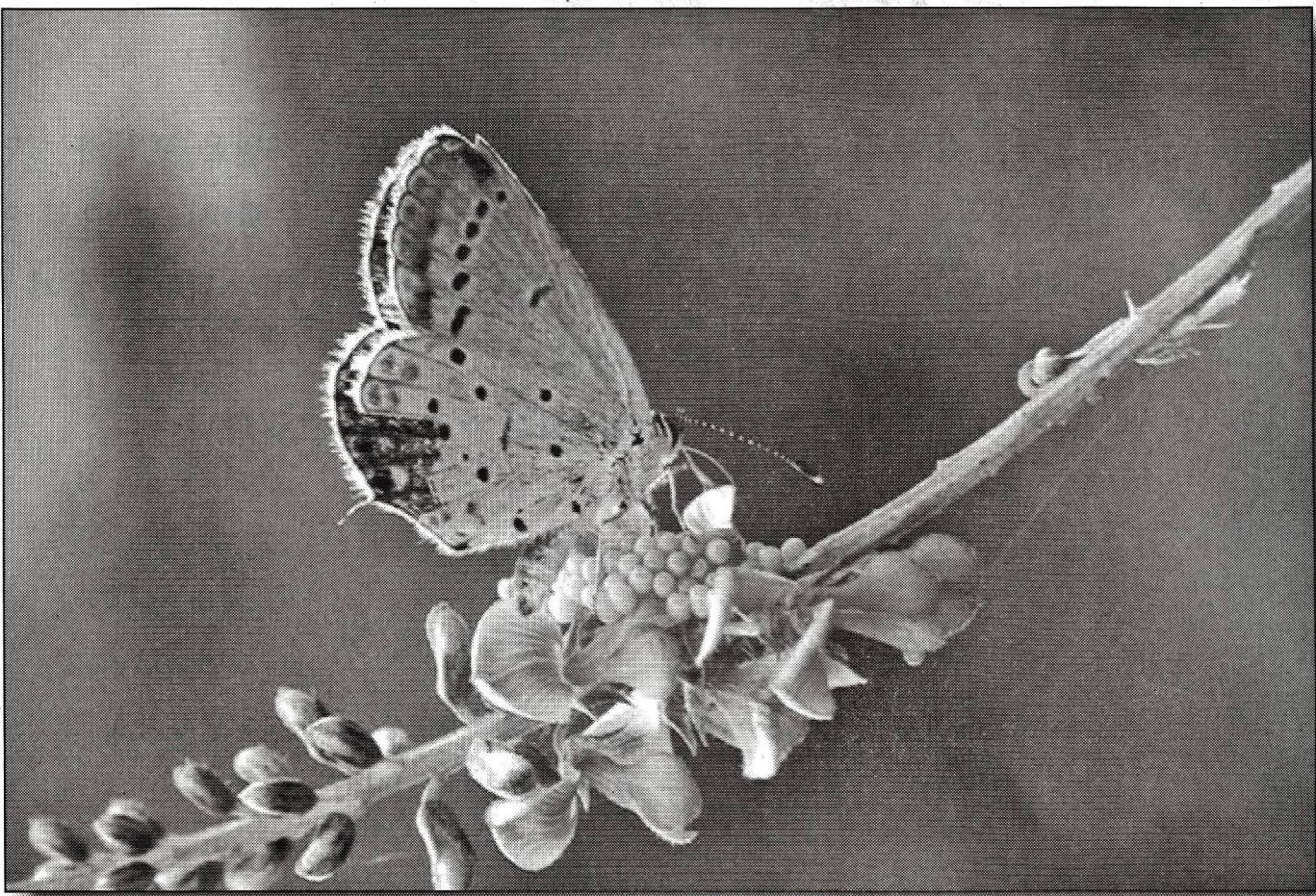
인 것이며 색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관념과 실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모든 현상적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육체는 안·이·비·설·신·의의 육근을 말합니다. 즉 감각과 지각의 기관 및 능력을 말합니다. 축이란 감각과 지각에 의한 인식작용이 일어날 경우 감각·지각 기관인 근과 그 대상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느낌 등의 경, 그리고 감각·지각의 인식주체인 식의 세 가지가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란 즐겁고 괴로운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애란 수를 통해서 느끼는 것에 대하여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욕구를 느끼고 싫은 것은 배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는 좋은 것에 대해 집착하여 가지려는 것입니다. 유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생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진리를 모르는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어 행·식·명색·육체·축·수·애·취·유·생·노, 사 등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높고 죽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가다 보니 그 뿌리는 무명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수립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살경)이라는 경에서는 부처님이 훗날 깨달음을 얻었을 당시에 회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사뱃티(사위승)의 제타 숲(기타림) 아나타핀디카 동산(급고독원)에 계시 때였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오직 이렇게 생각했다. 진실로 이 세상은 고통 속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병들고 죽어간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늙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늙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또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무엇이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올바른 사유와 지혜로써 이렇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태어남에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 간 결과 늙고 죽음의 괴로움은 결국 무명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유하셨던 것입니다. 늙고 죽음의 괴로움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존재를 이루려는 작용인 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 유는 집착에 의하여 발생하며 집착은 가지려는 욕구인 애에 의해 발생하며, 또 그 애는 느낌이 수가 있기 때문이고 수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인식작용이 결합된 축에 의한 것이며, 축은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능력이 육체가 있기 때문이며, 육체는 인식의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의 명색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이 명색은 식이라는 인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때의 식은 무명이라는 진리에 어두운 잘못된 인식작용을 가리킵니다.

또 이 식은 행이라는 의지작용에 의하여 생긴 것이며 행은 무명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으로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십이연기의 공식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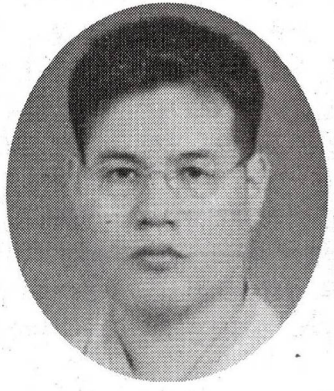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충지총보사의 작은 몸짓이 충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어둠속에 불이 밝혀진 연등



김용주 (총지종보사)

어둠의 거리에 밝혀진 등불 하나 하나가 우리 모두를 위하고, 남과 내가 하나인 동체 대비의 등불, 힘든 사람에게는 위안의 등불, 실망과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등불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이 자비와 위안, 희망과 아름다움이 가득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과 광경을 보더라도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게 차 있으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낄 수가 없지만 아무리 보잘 것 없고, 하찮은 풀 한포기일지라도 보는 이의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진다.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남을 시기하고 남의 허물을 밝혀 험담하는 것이 취미이고, 입만 열면 남의 흉을 이야기 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러한 험담을 하는 일이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둠의 거리에 밝혀진 연등은 자신의 등불을 밝혀 남에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요, 남이 어둠의 길에서 방황할까 염려되어 희망과 행복의 등불을 밝혀주고, 나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른 인생의 삶, 부처의 삶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며칠 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쁨과 나눔의 등'으로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흰 꼬끼리가 구름을 걷는 모습으로 상서로운 기운이 이 땅에 넘치고 기쁨과 나눔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장엄등의 점등식과 음악회가 열려 모든 불자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불이 밝혀진 꼬끼리의 장엄등 앞에 서서 기쁨과 희망을 기원하는 모습은 마치 부처님의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형상이 바로 앞에 시현되는 것 같이 보였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도 자비의 등불, 희망의 등불, 마음의 등불이 어두운 밤하늘에 의젓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이 등불 하나 하나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 씨앗을 가꾸어주고, 서로 경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의 마음에는 자비와 미소의 등불을 밝혀서 온 세계가 부처님의 자비스런 세상처럼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인 동체대비 불국토의 나라가 열리고, 모든 이들은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부처라는 생각으로 모든 집착과 아만, 야상, 분별심을 버리고 서로 화합과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 주기를 기원해 본다.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어김없이 연등이 나부끼고 어두운 밤하늘에는 화려하고 장엄한 불이 밝혀진 연등이 아름답게 수놓으며 자비의 불빛으로 온누리에 희망과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올해도 연등은 온 거리를 아름다운 연분홍 불빛으로 장식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절을 방문하여 연등에 불을 밝

연등은 부처님 지혜의 등불

동체대비의 등불, 마음의 등불

히며 소원성취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지만 우리가 연등에 불을 밝히는 뜻은 불을 밝혀 어둠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 실체가 없는 무명(無明)으로 가득찬 이 세상에 지혜의 등불을 비추어 무명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더불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밝고 싱그럽고 자유로우며 지혜롭게 살아가자 함이요, 나의 안녕과 평화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 우리 모두를 함께 위하여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연등의 등불은 부처가 부처를 수기하는 부처님 지혜의 등불로 부처의 지혜는 '반야바라밀다'로 자성불이요, 마음의 등불인 것이다. 이러한 등불은 우리의 결모습이 연등이요, 그 안의 등불은 바로 마음, 자성, 불성의 등불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연등의 등불을 켤 때 진실하게 마음을 모아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하며, 이렇게 마음으로 켜 등불은 무명의 업식을 녹이는 지혜의 등불이 되며,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반의 등불이 되며, 일체의 은혜를 다 갖춘 공덕의 등불이 되며, 부처가 되는 실천수행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교계소식

조계종 국고보조금 횡령 등 물의에 '自淨' 선언

총무원 "열린행정 구현" 불교단체 "엄중처벌" 촉구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의 미니골프연습장 설치와 국고보조금 횡령,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의혹 등 승가의 위법행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승가 자정'이 새로운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계종은 이와 관련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자정 의지를 피력했으며, 교구본사주지회의 전국비구니회, 실천승가회 등 교계 단체들이 승가 자정의지를 천명했다.

조계종 자정을 촉발시킨 것은 불국사 골프장 설치 문제를 제기한 문화연대의 기자회견이다. 문화연대는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불법 골프연습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 재가연대도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국사 골프연습장 설치,

주지 종상 스님의 호화요트 구입과 외환관리법 위반 의혹, 화엄사 전주지 명섭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의혹, 동국대 교비전용 및 필동 병원 매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결과 불국사 골프연습장은 철거됐으며, 명섭 스님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4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명섭 스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조계종은 4월 12일 불교중앙박물관 의혹은 조계종 총무원 자체 조사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임을 시인하고 공사업체와 계약해지를 추진중이며 관련자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동대 관련 의혹은 중앙총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으나 특위 구성 적법성부터 논란을 벌여 실질적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천성산 환경조사 5월 중순 실시

조사 방법·내용 최종합의

천성산 환경영향조사가 5월 중순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또 조사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판결에 따른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는 4월 22일 오후 2시 양측의 전문가 14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천성산 환경조사의 구체적 방안과 내용을 담은 합의를 작성하고 5월부터 현장조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서명은 5월 6일에 할 예정.

합의서에 따르면 14인의 조사단은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며, 분야는 구조지질, 암반공학, 지하수, 지구물

리탐사, 생태계 등이다. 또 조사 범위는 과거 조사내용을 기본으로 문헌조사, 습지주변 시추조사, 생태계 조사 및 분석 등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필요한 현장조사, 시험, 분석, 해석 비용과 공동조사 위원의 소요 비용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천성산 대책위 대표 지을 스님은 "시공업체가 계획서를 작성해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기로 했다"며 "어떻게 조사실시에 합의한 만큼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과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계 단체들은 4월 13일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만나 △중양박물관 문제에 대한 객관적 조사기구 구성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설치 △중단 각급 기관의 '직무수행청구' 제정 △재정투명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법장 스님은 "일반 및 특별 감사에 재가자를 포함시키고 국고보조사업이 행적임을 만들어 배포하며, 중무구조 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며 "이번을 소중히 계기로 삼아 중단과 사찰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시급적인 것으로 삼겠다"며 "사부대중이 운영하는 열린종무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대로 빠른 시일안에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낙산사 복원 불자 앞장

지역사찰 '자비의 실천운동' 자원봉사 등 활발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산불피해 직후 총무부장 무관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양·고성 낙산사 산불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전국 사찰을 중심으로 낙산사 복원 뿐 아니라 양양·고성지역 이재민 돕기를 위한 범국민적 동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4월 12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1차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위 내 △복원지원팀 △대정부협의팀 △성금모금팀 △복구지원팀을 구성했다. 또 △양양·고성 이재민 돕기 중단 차원 진행 △불자들 원력으로 낙산사 복원 △사찰에 부처님오신날 특별 성금 모금 권장 등을 기조로 산불피해 복구에 나선다는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대책위는 우선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사찰 낙산사 복원

동참 특별 불전함 설치 운영 △1인 1기와 불사 동참하기 △낙산사 복원을 위한 등 달기 △1인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등을 전개한다.

강원불교연합회는 4월 12일 춘천시청 앞에서 '자비의 탁발'을 시작으로, 영서지역(4월 21일), 영동지역(4월 22일) 등지에서 성금모금을 위한 자비의 탁발을 진행했다.

니르바나필하모니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도 4월 26일 저녁 8시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봉축 기념 창작명상음악회'에서 특별 모금함을 설치해 관람객들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낙산사가 불교계의 성지 뿐 아니라 국민들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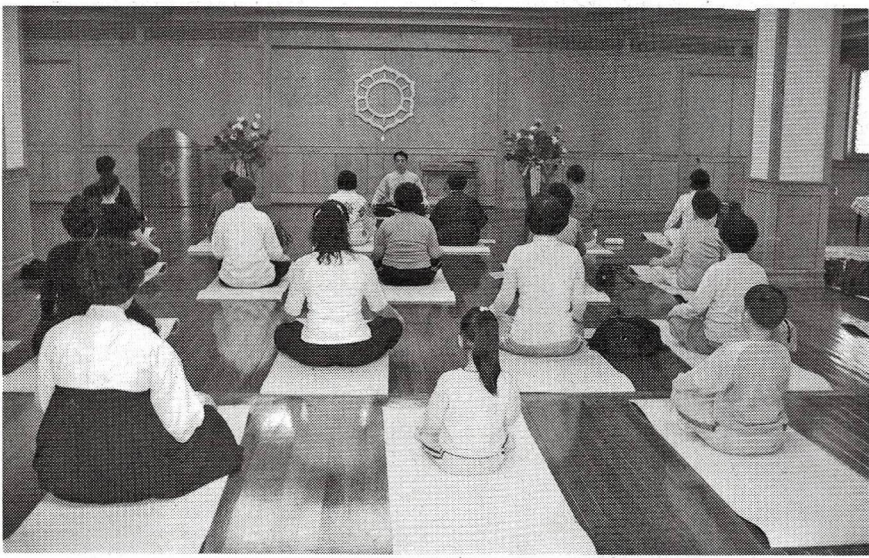


요가는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 대 상 : 일반시민
-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화, 목 오후 3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30,000원, 월 \20,000원
정각사 - 월 \10,000원
-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

총지중 총지사, 정각사 요가열기 후끈 심신수련을 통한 즉신성불



최근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웰빙문화의 일환으로 총지중 총지사 정각사는 요가강좌를 개설하여 개강하자마자 교도 및 일반인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정각사는 지난달 중순 1층 강당에 요가강좌를 개설하자마자 교도들의 신청이 초과되어 당초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강강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가 초과되어 대기자까지 생

기고 있어 강좌시간을 증편할 예정이다. 서울의 총지사는 5월 2일부터 총지사 2층 중조전 강당에 요가강좌는 시행할 예정으로 4월 24일 일요일 교도들에게 시범강좌를 실시한 결과 많은 수의 교도들이 동참하여 호응도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요가강좌에 참석한 교도는 "보살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요가강좌에 참석하여 요가로 몸을 단련함으로써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으며, 심적으로도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어 환희심이 가득하다."며 "많은 수의 교도들이 요가강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요가강좌의 시간을 증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각사는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에 1시간씩, 총지사는 매주 월, 수, 금은 오전 10시에, 화, 목은 오후 3시에 1시간씩 요가강좌를 실시한다.

“죄를 짓지 말고 자비행을 실천하라”

법상원 기로스승 열반1주기 추선불사

지난해 열반한 법상원 기로스승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4월 3일 밀양 밀행사에서 유가족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추선불사에서 의강 종사는 “올 때도 빈손으로 오듯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불법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시고

오직 중생구제를 위해 용맹세워 정진하시던 모습이 옛그제 같은데 스승님의 모습을 사죄로만 보오니 눈물이 앞을 가리며 부디 극락세계에 왕성하시기를 바란다.”고 발원하였다.

법상원 기로스승은 총기 7년 스승으로서의 관정수계를 받은 후 밀양에 위치한

밀행사의 주교로 임명되어 수행하다가 총기22년 기로스승이 되어 현장에서 물러났으며,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자리잡은 탐심이란 놈 때문에 서로간에 싸우고 질투하고 분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탐심이란 놈을 버리면 모든 것이 편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걸림이 없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쌓아놓은 업에 의해 내생이 좌우되듯 항상 선업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절대 남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말고 입에는 칭찬의 말을 품어오는 자비행을 실천하라.”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나도 한마디

최근에 들려오는 불교계 소식 중에 이해하기 힘든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함께 만나면 진리법을 논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문답과 참선을 행하고 청렴하게 생활해야 할 수행자들 중 일부가 국고금을 횡령하고, 골프를 치고, 공사금의 비리 등 세속인들에게나 해당되는 단어들들이 들려오는 것은 왠지 생소하고 특이하게 느껴진다.

수행자들에게는 ‘여가’라는 낱말을 쓰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워야 한다. 부처님께서 자신 길을 따라 깨달음을 얻어 생사를 뛰어넘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본분에 충실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번뇌에 물든 세속인들이 누구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하며 따라 하고 싶은 ‘문화’를 바로잡고 세속의 대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임무가 바로 수행자의 길일 진대 수행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행자는 매일 매일 세속의 욕망과 탐욕을 극복하고 인

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세속의 번뇌와 욕망을 극복하는 행위가 바로 수행일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가 세속인들에게도 금지하는 행위를 행했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며, 스스로 참회를 해야 한다.

한 승단의 풍종과 기강이 해이해져 단지 한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모든 불교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무릇 중생들에게 실망감과 더불어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 훌륭한 수행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승단은 청정해야 하며, 철저한 계율과 엄격한 자기 절제와 인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승단만이 대중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 법. 승 삼보인 승가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경받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물론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비리를 행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위에 많은 타 수행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앞으로 불교계에 나쁜 소식들이 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행자들이 자신의 수행과 계행에 엄격해야 한다.

(김인산/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최근 불교계 소식을 접하며

신행체험 21

행복과 불행은 마음자리



안소윤(대행정) 보살
(제석사 인정회 회장)

▶ 총지중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
총지중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조모님과 부모님들이 독신하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불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모두가 절에서 불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심에 의해 가족들은 한 명도 불평불만없이 불공을 하더니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절에 나가 불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무인 것으로 알고 불공을 하였습니다.

▶ 총지중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
저희 가족은 모두가 절에 나가 불공을 하더니 가정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화목하게 되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공덕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삭막하고 냉혹한 사회에서 절에 나와 땅아지처럼 낯익은 마음을 바로잡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과 업에 의해 발생하고, 자신을 바로 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간에 인간다운 따뜻한 정이 메달라가는 현대인의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넓고 넓은 공정안에서 불법의 진리를 체득하고 불법의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마음입니다.

▶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과 행복이 자리잡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존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한 순간의 나태한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순간은 영원할 수도 찰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리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작용합니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내부적인 마음가짐에 따라 고통과 아픔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인식하지 않고 내일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아픔이 더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 그동안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수행법은?
저희는 가족모두가 제석사에 나와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제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에서 어머니가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행을 행하며 가족들 모두가 불공을 하는 것이 의무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과 손자들의 편리함을 생각해서 나만 절에 나와 불공하지!

하고 계신다는 법신불사상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공법은 마음자리를 찾는 것과 자신의 상을 없애는 불공법으로 마음자리를 살필 수 있는 도량과 수행법이 있어 그저 좋을 뿐입니다.

수행법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수행일지라도 마음속에 환희심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다보면 어려움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행은 마음자리를 닦는 공부라 생각합니다. 좋고 나쁨의 분별심은 “나”라는 존재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고 나쁨도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총지중의 수행법이 좋고 최고인 줄만 알고 열심히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 제석사 교도들 자랑할 점은?
어느 사원에서나 마찬가지로 제석사는 특히 가족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성일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새해불공과 부처님 오신날에는 전 가족들이 절에 나와 불공합니다. 전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보니 가족간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석사는 단합이 잘됩니다. 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일은 제쳐놓고 절에 나와 함께 일합니다. 제석사의 모든 보살님들은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줍니다.

오히려 화장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석사는 법력이 높고 훌륭한 스승님들이 교화하셨고 현재에도 훌륭한 법상인 전수님이 교화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제석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현재와 같이 가족처럼 잘 지내고 교도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제석사의 살림을 꾸려가는데 있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단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확고한 신앙심으로

가족제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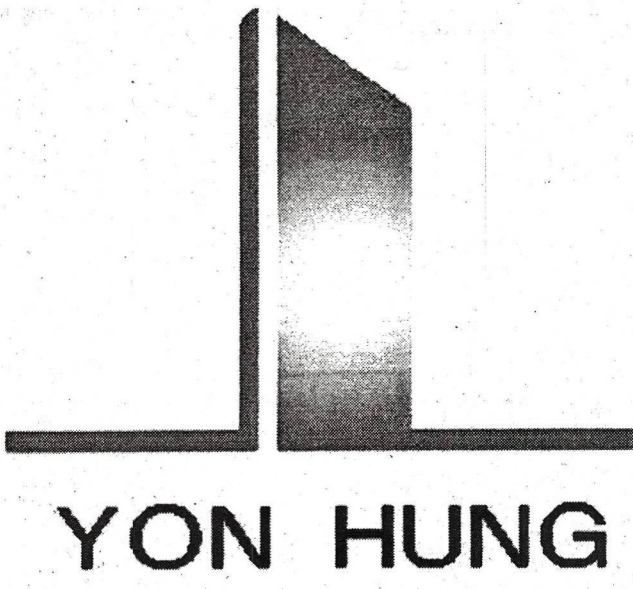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불공의 의무인 것으로 알고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고 반드시 절에 나가 불공을 해야 한다고 인식을 시켜주어야 하며, 본인도 월초불공과 자성일불공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합니다.

가족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서로간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가족들 각자의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원성취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부모가 발원하고 기도해도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나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성취를 지심으로 발원할 때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지중 수행법의 좋은 점과 수정할 점은?
우리 수행법은 처처불공, 시시불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불공하는 불공법이 참 좋고, 시방세계 어느 곳곳에 법신비로자나불이 있어 우리를 나쁜 악의 수렁에서도 구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

21C 建設文化的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아는 기업 인정 받는 기업
책임을 아는 기업 봉사를 아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경영이념(經營理念)

상호 존중 기술 혁신 고객 만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 (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